

숨겨진 보물

1970년대, 유인도 296곳 중 118곳 통행 불가
당계·풍장 등 독특한 섬 풍습 지키며 소박한 삶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제한된 섬은 망명대해에 흠뻑 젖은 작은 세계였다. 유인도 296개, 무인도 1923개 등 모두 2219개의 섬이 있는 전남에는 그 수 만큼 다양한 보물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전국의 섬이 3409개(유인도 487개, 무인도 2922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섬에 있어서는만큼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물과 비교적 먼 섬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 항해 및 선박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다.

항도사학자 김경호가 1971년 전남지역 250여 개의 섬을 답사한 기록을 담은 '섬, 섬사람들(1991)'에 따르면 1970년대만 해도 전남지역에 갈 수 없는 섬은 118곳에 달했다. 당시까지 섬에는 봉화가 의 사소통수단이였다. 지금은 무인도인 노대도에는 4가구 35명이 살고, 섬 주민은 이웃 섬에 갔다가 되돌아올 때면 배를 보내달라고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섬 주민들은 언제나 부족한 물과 식량으로 궁핍했고, 비싼 물가에 미흡한 기반 시설 탓에 자식들은 무조건 물으로 보내려 했으며, 자신도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기다렸다. 떠나지 못한 자들은 남아서 그들만의 고유한 풍습을 만들었다. 물에서는 거의 사라졌던 당계(堂峯), 풍장(風葬)의 또다른 형식인 초빈(草飮), 돌담 등이 대표적이다.

당계는 당산신(堂山神) 등의 제당신을 모시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한 의례로 다른 지역과 문화적 특성을 나타냈던 곳은 호남지역, 그것도 전라도의 섬이었다. 크기는 재사형·풍물형·무속형·혼합형 등으로 분류됐는데, 정월 초순 주민회의가 소집돼 재판을 선정하는 등 당계는 섬 주민들에게 1년 중 가장 큰 축제이기도 했다.

초빈은 시체를 썩도록 3~4년간 이영이나 물로 덮어두는 것으로, 거의 유일한 외지인이었던 교사들은 섬 전체의 쾌쾌한 냄새 탓에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비교적 주민이 많았던 섬은 섬 내에서, 적은 섬은 다른 섬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으면서 이웃이 거의 전적으로 구성됐고, 그로 인해 폐쇄성이 강하며, 일체의식도 있었다고 김경호는 전하고 있다.

개발의 광풍이 물을 휘감았던 1970년대까지도 섬은 미지의 세계인채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다리박물판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 제정돼 본격 개발
40개 연륙·연도교 건설...향후 26곳 더 설치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섬에 선착장, 연륙·연도교, 마을회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시작했다. 10개년 계획으로, 지난 2008년부터 제3차 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5년간 140곳에 5402억원이 투자됐고, 올해는 84곳에 120개 사업(1078억원)이 추진됐다.

전남의 연륙·연도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여수~오동도가 최초이며, 그 뒤로 38년이 지난 1968년 해남과 완도를 잇는 완도교가 설치됐다. 이후 1970년 여수소라~달천도, 1975년 무안 해재~신안지도 등에 이어 1980년대 11개, 1990년대 12개, 2000년대 12개, 2010년 이후 5개 가 각각 물과 섬, 섬과 섬을 이었다.

연륙교가 들어선 뒤 10년이 지나면 섬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 섬도 늘어났다. 연륙·연도교는 앞으로 26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접근성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사업은 그러나 토목·건축 위주로 진행되면서 물에서의 난개발과 비슷한 문제점을 양산시켰다. 경관이 변화

하고, 물과 유사한 시설에 섬의 정체성이 흔들거린 것이다.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섬을 찾는 외지인들도 급증했다.

전남은 섬을 관광의 대상으로 삼고 지난 2005년 '테마 섬 개발사업'을 수립했다. 40곳의 섬을 4개의 클러스터로 나누고 모두 15가지 주제로 개발하는데 1조 1999억원의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24곳의 섬에 2250억원이 투입되면서 여수 금오도, 신안 증도, 고흥 시호도, 영광 송이도, 완도 청산도 등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들 사업 탓인지 전남 섬을 찾는 외지인들도 크게 늘었다. 다만 섬과 어울리지 않는 무리한 계획, 실정 무시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 및 사업, 수요 감إن은 공급 위주 방식 등은 여전히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로 인해 천혜의 자연자원 보존 방식, 적극적인 자연 환경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방식, 섬 자체의 특성을 강조한 방식 등 섬을 대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는 민선 6기 이낙연 전남지사가 브랜드 사업으로 내건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자양분으로 들림 없다.

2219가지 질박한 삶의 풍경, 사람을 부른다 추억을 부른다

(전남지역 섬 개수)



1 들어가며



외로움, 고립, 설움, 소외, 기다림의 상징인 섬이 전남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랜 기간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물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간직해온 섬에 사람들이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륙·연도교로 물과 연결되면서 비교적 거주 인구가 많은 섬은 그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상실하며 물에 흡수됐고, 선박편으로 쉽게 닿을 수 있으면서 자연광으로 유명한 섬에는 콘도, 펜션, 데크 등 물의 인공구조물이 들어섰다.

섬 사람들의 소득은 높아졌지만 공동체가 가졌던 일체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섬이 가졌던 가치는 오히려 물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사람들이 많이 찾을수록 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과의 접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탄생할 수 없으며, 섬 자체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다도해를 품은 전남도는 섬을 숲과 함께 전남의 브랜드로 삼고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섬 개수	유인도 296개, 무인도 1923개 (전국 3409개 중 65% 전남 분포)
■ 인구	유인도 거주 8만6000가구 총 18만3000명 (전국 섬인구의 23%)
■ 관광객 추이	2013년 896만명 - 7년새 59% 증가 (목포권 395만명, 완도권 327만명, 여수권 174만명)
■ 통·식물 등 생태자원	늪비둘기·노랑부리백로·상록수림·황지·흑난초·후박나무 등 천연기념물·희귀식물 군락



성공사례-청산도

'청산도(靑山島)'는 이름 그대로 푸른 섬이다. 맑고 푸른 다도해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해 신안 증도와 함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청산도는 영화 '서편제'가 촬영되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명소가 됐다.

전남 끝머리에 위치한 완도에서도 남동쪽으로 약 20km 남짓 떨어진 청산도는 동쪽에 거문도, 서쪽에 소안도, 남쪽에는 여서도와 제주도, 북쪽으로는 신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경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빼어나다. 뱃길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먼 길이지만, 한번 다녀온 후에는 서경처럼 아름답음이 두고두고 남는 환상의 섬이다.

섬이 전남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으로, 섬 주민이 주체가 돼 섬 매력을 다듬어가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하늘에서 바라본 신안군 도초도 일대. /남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섬 사람들

2010년 귀어귀구 증가로 반짝 회복
총 19만여명 거주...100명 이하 유인도 172곳

전남의 유인도 가운데 500명 미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섬은 무려 257곳(유인도의 86.8%)에 이른다. 1~25명인 곳이 78곳, 25~50명 미만인 46곳, 50~100명 미만이 48곳으로, 거주민 100명 미만의 유인도도 172곳으로, 이들 섬은 사실상 주민을 위한 시설투자가 어려운 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는 지난 2005년 8만3137세대 20만772명으로, 20만명을 갱신하지 못하다가 2008년 2만2970세대 18만 985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0년 귀어귀구의 증가로 8만6226세대 19만4586명으로 회복세에 있지만, 인구 감소 추세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다. 반면

섬 방문객은 지난 2006년 562만5000명에서 2013년 843만2000명으로, 30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방문객을 위한 '물'의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섬의 가치나 문화를 알고 있는 주민은 갈수록 줄어들고, 물의 시설에 익숙한 귀어귀구와 방문객들이 섬의 '주인'이 되고 있다.

장르르나에 자신의 책 '섬'에서 언급한 섬의 특징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신비감과 환상, 감명감의 '사진에 아이에서의 외로움과 평화, 영화 '그 섬에 가고 싶다'에서의 폐쇄성이 서서히 담시되고 있는 섬이다.

생태 보고

후박나무·팽이갈매기...때묻지 않은 자연
해상유람·스쿠버다이빙·낚시로 레포츠 만끽

전남의 섬은 아직도 손길이 닿지 않는 '처녀성'을 간직한 상록수의 숲과 비자·후박나무, 때묻지 않은 자연을 자랑하듯 뽐낼지 모르. 바다제비·습새·팽이갈매기·노랑부리백로·저어새 등의 번식지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여수 남도에는 공룡발자국과 퇴적층 등과 함께 이들 자식들은 모두 천연기념물이다. 구들장논, 지식묘근, 석담, 열전, 담장, 등대, 허마비, (운선도, 송시열 등) 유적지 등 33개의 사적·문화재·기념물, 영화 촬영지 등 인구가 만들어낸 흔적들

은 그야말로 '덜'이다. 관광상품으로 이미 명성을 얻은 해상유람, 스쿠버다이빙, 해수욕, 낚시 등도 물론이다 '진하게' 즐긴다.

앞서 언급한 섬의 특수성과 섬의 자산 및 매력을 극대화시켜 지역발전의 기틀을 삼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사업의 핵심 철학이다.

전남도는 오는 2016년 섬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15년 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대상지를 선정해 섬별 주민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섬 가꾸기

섬 특수성 살린 대표음식·관광상품 개발
자연·문화 보존하며 '가고 싶은 섬' 만들기 나서

섬과 물 사람의 접촉을 어떻게 유도하고, 보존해야 할 가치와 추가해야 할 인공 시설물은 무엇인지를 섬 주민과 외지인의 수요 등을 감안해 각 섬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가 성공한 일련의 성과를 경계하고 20~30년 이상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우선 긍정적이다. 여기에 소득·계층·접근성·섬 거주 인구 및 유·무인도 여부 등에 따라 사업의 방식·양태 등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과거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 섬마다의 대표 음식을 상품화하

나 알려지지 않는 문화를 주제로 한 소수 테마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철저한 계획에 의한 제한적이며 '특별한' 개발 등으로, 전남의 섬을 '히트 상품화'시키는 것도 사업의 전제조건이다.

전남도 이상심 섬 담당은 "보존을 통해 콘텐츠를 브랜드로 만든 여수 금오도 비렁길, 민간투자와 적극적 행정의 상징인 신안 증도, 주민의 일상과 자연 그대로를 상품화한 완도 청산도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며 "섬의 자연과 문화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농수산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전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참술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착한 소장수
262-0049/010-3803-2612

새해 **이웃** 맞이